

‘인물·지역발전론’ VS ‘MB정권 심판론’

재보선 12~13일 후보자 등록… 본격 선거전 돌입

대한민국 속 여야 각각 2곳 승리 점쳐… 분당 ‘박빙’

4·27 재보선이 이번 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열전에 돌입된다. 초반 판세는 여야 모두 강원지사와 경기 성남 분당을, 경남 김해을 등 어느 한 곳 승리를 자신할 수 없을 정도로 ‘시계 제로’ 상태다.

특히 오는 12~13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해도 당분간 이 같은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경우 지역 선거인 만큼 ‘인물·지역발전론’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의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10일 현재 강원지사와 분당을, 민주당은 분당을과 김해을

을 각각 승리 예상지역으로 꼽고 있으나 그 차이가 근소하고 변수가 아직도 많아 선거 막판까지 괴리라는 접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성남 분당에서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초박빙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후보가 민주당 손학규 후보를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는데 양당의 분석이 일치한다. 50~60대 유권자 사이에서는 강 후보 지지율이 크게 앞서지만 반대로 30~40대에서는 순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공고하다는 게 양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최후의 방어막인 분당을 사수하

기 위해 내주부터 스타급 의원들을 현장에 출동시키는 총력지원 전략을 가동할 계획이다.

최대 변수는 투표율이다. 민주당은 짧은증의 투표율을 제고 위해 부재자 투표운동을 벌이고 있으나 중앙선관위가 이에 협조적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이 지난 8일 재택투표 등 부재자 투표 방식을 안내하는 자당 명의의 온라인 광고를 실자 경기도 선관위가 해당 포털사이트 2곳에 광고 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유권자들에게 투표 요청을 알려줘야 할 선관위가 자신들의 업무를 대신해 준 점에 항의”며 반발하고 있다.

‘MBC 사장’ 출신인 김해을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 최문순 후보의 추격전 속에 한나라당 양기영 후보가 10%포인트 가량 앞선 것으로 분석된

다. 하지만, 최 후보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한나라당도安心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김해을 지역은 아권의 후보단일화 사자로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 간 ‘1대 1 구도’가 형성되면서 선거 판세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후보단일화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서 속에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가 인물론과 김해 발전론을 기치로 밭토 뛰는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있어 어느 정도 바람을 일으킬지도 주목된다.

순천은 민주당의 무공천 방침 속에 최근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가 아권의 단일후보로 선출됐지만,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어 민주당 출신 무소속 대비(非)민주당 출신 애권 단일후보 간 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에 한표” 민주당 손학규(맨 오른쪽) 대표와 광진업 후보, 당원들이 10일 경남 김해시 장유면 장유암 등산로 입구에서 손을 흔들며 김해을 보궐선거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여당 지지를” 국민참여당 유시민(중임) 대표가 10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대창초등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에게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역학구도 변화조짐… 孫에 줄서기?

‘조용한 유세’ 불구 원내외 인사 분당 방문 줄이어

전격적인 4·27 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계기로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분당 을은 물론 전체적인 재보선 판세가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선거 이후의 역학구도를 대비, 손 대표를 향한 국회의원들의 구애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실제로 손 대표는 ‘나 흘로 선거전’을 표방했지만 분당 을에는 그동안 ‘손학규’를 제외하고도 30여명의

의원들이 한 차례 이상 지원을 다녀가는 등 원내외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비주류 인사 가운데 상당수도 손 대표의 출마가 ‘당을 위한 결단 및 희생’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분당 을 보궐선거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는 분당 을 출마 자체로 손 대표가 아권을 상징하는 주인공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데 한나라당 덩달아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비교적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눈도장’

을 찍으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손 대표 캠프 주변에는 총선 국면에 대비한 ‘보궐성 출대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마저 들고 있다.

그동안 일정 거리를 유지했던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손 대표와의 관계 개선에 직접 나서고 있다.

전남지역 모 재선의원은 최근 친 손학규 계로 분류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과진업, 민주노동당 김근태,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다.

2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각 700명

씩 모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화 여론조사 방식은 자동응답서비스(ARS) 방식이 아니라 집전화를 통한 면접 여론조사로 실시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해을 애권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경선 오늘 완료

4·27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애권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경선이 10일 해당지역 선거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작돼 11일까지 실시된다.

경선자는 민주당 과진업, 민주노동당 김근태,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다.

2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각 700명 씩 모두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화 여론조사 방식은 자동응답서비스(ARS) 방식이 아니라 집전화를 통한 면접 여론조사로 실시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홈페이지제작은 기본! 모바일홈페이지 까지!

도메인

호스팅!

홈페이지만 만들면
이 모든것이 무료!

로고
디자인

컨설팅!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 상담 폭주!
(아이폰, 안드로이드 용)

상담문의
마블아이엔씨

010-2637-9358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KDB빌딩 1904호

남성 성기능 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둔구어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큐나프리언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서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선택방법 및 제품특징

- 평소에 별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별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2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 하시면 별기가 질립니다.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문의 전화 010-7770-8138 주문즉시택배
무료배송
농협 302-0136-6325-61 권옥연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 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 가능·연령무관)

◎ 추심직, 계약상담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 : 김정수)

식당용 중고품 - 매매전문 -

냉장고 A/S전문 주방 용품

광주·전남·북
전지역 출장환경

타업체보다
더 드립니다!!



백두산 중고매장

직통 011-9430-1698

본점 062) 521-6677
북구점 062) 524-3377
첨단점 062) 945-8778

가 지난 9일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백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는 민주노동당 곽경숙 국회의원, 민주노동당 문경식 전남도당위원장, 민정기 광주·전남 진보연대 상임대표, 정광훈 한국진보연대 고문 등 400여 명이 참가해 부폐정치 청산과 분열정치 청산을 약속하며 필승을 기원했다.



최만원, 화순~광주 버스운행 공약



전보신당 최만원 화순군수 예비보는 10일 화순과 광주를 잇는 야간 셔틀버스 운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 예비후보는 “광주에서 출퇴근하거나 통학하는 군민들을 위해 밤 10시 30분부터 자정까지 배차간격을 15분 이내로 해 화순 소재역을 왕복하는 야간 셔틀버스를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150, 151, 152번의 배차간격을 줄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의 불편함을 없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정은 ▲목포중앙초 11일 ▲순천신중초 16일 ▲순천향림중 22일 ▲화순중 11일 ▲화순도곡 종양초 21일 등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4·27 재보선 현장

박지원, 조순용 후보 사무실 방문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지난 9일 조순용(사진)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밤 10시 30분에 순천시 연향동 예비후보 사무소를 방문해 선대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민주당의 ‘무공천’ 입장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에게 민주당의 무공천에 유감을 표시하고 무소속으로 당선돼 복당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철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박상철 예비후보는 11일 오후 2시 풍덕동 순천랜드 2층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박 예비후보는 지난 4일 민주당 지도부가 ‘순천 무공천’을 확실시 하자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박 후보 측은 “선거사무소를 시작으로 당선을 위한 조직개편을 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전환하고, 이번 보궐선거에서 꼭 승리해 순천의 자존심을 지킨다”고 밝혔다.



백남수 화순군수 후보 본격 선거전

화순군수 재선기에 나서는 민주노동당 백남수 후보

않고 있으며 대북 대화에 대한 틀과 격식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 의원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자 “한국 정부의 입장은 회의적(skeptical)으로만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면 매우 좌절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 의원은 소개 했다.

그는 또 “미국은 과거 북미 간에 진행해온 ‘살라미 협상’(하나의 카드를 여러 개로 나눠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전술)을 더 이상 원하지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